

한국 연극계 1세대 산증인

타계한 연극배우 김동원 선생



'영원한 햄릿'으로 불렸던 원로 연극배우 김동원씨의 햄릿 초연 모습.

13일 별세한 '영원한 햄릿' 연극배우 김동원 선생은 국내 연극계 1세대의 산증인이었다.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생전에 모두 300여편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영화에도 진출해 '여성의 적'(1956), '춘향전'(1961) 등 50여편에 모습을 보였다.

연극의 주인공 역을 도맡아하며 미남형에 선 굵은 연기로 인기를 얻은 고인은 '햄릿'을 4번이나 맡아 '한국의 햄릿'으로 이름을 날렸다.

고인의 대표작으로는 '햄릿' 이외에도 메피스토 펠레스로 열연한 '파우스트'

'세일즈맨의 죽음' '뇌우' 등이 손꼽히며 특히 '뇌우'는 고인의 나이에 따라 극중 아들, 아버지, 노인 역을 모두 맡은 작품이기도 했다.

아들인 가수 김세환씨는 "아버지가 출연하는 첫 공연이 있을 때면 연출가, 배우 등 20여명 분의 도시락을 챙겨 극장에 가곤 했다"며 "공연을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버지 연극에 대해 신랄한 토론을 벌인곤 했다"고 추억했다.

2003년에는 미수를 맞아 연극인생 62년을 돌아보는 전시회 '영원한 햄릿 김동원의 예술과 삶'이 열렸으며 회고록 '미수의 커튼콜'이 발간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같이 일하고 싶은 태극전사는 '박지성'



직장인들은 월드컵 출전 선수 중 박지성 선수와 가장 많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채용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천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7.2%가 '월드컵 출전 선수 중 동료로 같이 일하고 싶은 태극전사'로 '박지성 선수'를 꼽았다.

그 다음은 '김남일(13.3%)', '안정환(13.0%)', '이영표(12.4%)', '박주영(11.6%)'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이영표 선수(15.2%), 여성은 박지성 선수(23%)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꼽았다.

구례경찰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



구례경찰서 간전파출소(소장 이상기)는 최근 구례군 간문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법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원기(한국병원 원장)씨 장남 세훈군 조건국(조건국내과 원장)씨 차녀 현정양=20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정병주씨 장남 재균(의사)군 정병천(광주대동 행정실장)씨 장녀 연주양=21일(일) 낮 12시 20분 광주 오피라하우스 3층 특식.

▲박재환씨 장남 흥빈(한의사)군 정병모(전남도청 전남개발공사 총무부장)씨 장녀 선(한의사)양=21일(일) 오후 3시 KBC광주방송국 컨벤션홀 3층.

동창·동문회

▲광주고 제 15회(회장 윤효연) 동창회=15일(월) 오후 6시30분 대

인동 제주삼다갈치, 233-4747

▲광주 효동 32회 정기 월례회=16일(화) 오후 8시 북구 우산동 화니콩나물장국, 523-2550

▲광주 진흥고 2회(회장 조갑현) 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미륵동 또또반점, 011-601-2207

▲광주공고 총동창회 정기총회=17일(수) 오후 7시 매곡동 아리랑뷔페 2층 백송실, 575-8255

▲정읍 호남고 동문회=18일(목) 오후 7시30분 용봉동 큰바다해물탕

▲조대부고 제 19회(회장 기동도)

부부동반축제아유회=21일(일) 오전 10시40분 염주체육관 주차장 출발, 369-0081

향우회

▲재광 장흥군 향우회(회장 안태경) 월례회=15일(월) 오후 7시 상록회관 4층, 352-0051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족원 광주전남 청년이사회(회장 리진우) 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225-5631

▲청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18일(목) 오후 7시 입동 광명해물가든 식당, 010-6688-8983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총 64시간. 문의 (A)한국여성장애인연합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654-1366

▲광주YMCA 청少年오케스트라 단원 모집=5월 27일까지 광주YMCA 전자회에서 접수. 악기경력 3년

5·18 '26년'으로 돌아온 인기 만화가 강풀

“유족들의 아픔 그리고 싶었어요”

13일

별세한 '영원한 햄릿' 연극배우 김동원 선생은 국내 연극계 1세대의 산증인이었다.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생전에 모두 300여편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영화에도 진출해 '여성의 적'(1956), '춘향전'(1961) 등 50여편에 모습을 보였다.

연극의 주인공 역을 도맡아하며 미남형에 선 굵은 연기로 인기를 얻은 고인은 '햄릿'을 4번이나 맡아 '한국의 햄릿'으로 이름을 날렸다.

고인의 대표작으로는 '햄릿' 이외에도 메피스토 펠레스로 열연한 '파우스트'

'세일즈맨의 죽음' '뇌우' 등이 손꼽히며 특히 '뇌우'는 고인의 나이에 따라 극중 아들, 아버지, 노인 역을 모두 맡은 작품이기도 했다.

아들인 가수 김세환씨는 "아버지가 출연하는 첫 공연이 있을 때면 연출가, 배우 등 20여명 분의 도시락을 챙겨 극장에 가곤 했다"며 "공연을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버지 연극에 대해 신랄한 토론을 벌인곤 했다"고 추억했다.

2003년에는 미수를 맞아 연극인생 62년을 돌아보는 전시회 '영원한 햄릿 김동원의 예술과 삶'이 열렸으며 회고록 '미수의 커튼콜'이 발간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은 전남대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언젠가는 5·18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며 "5·18이 발생한 지 20여년이 지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특히 그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커나가는지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가 준비하고 있는 분량은 25화에서 30화 정도다. 마감시간을 지키려면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강씨는 "5·18에 대한 이야기는 진부하고 지나간 이야기, 끝은 이야기가 이미 끄버렸고 10·20대에게는 낯선 이야기가 끄버렸다"면서 "5·18의 가해자나 피해자, 당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도 모두 살아있고 역사의 뒤안으로 가기 5·18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5·18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

그는 상지대 국문과 94학번으로 학창시절 총학생회 선전부에서 일했다. 특히 만화를 접한 곳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대자보 만화를 그리면서 그의 만화인생은 시작된 것이다. 학생운동을 하면서부터 그는 5·18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은 이번 창작활동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강씨는 "물론 만화는 광선"이라며 "될 수 있

"젊은 사람들 오래 기억했으면"

는대로 저도 희생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반영하지 않으려 했고, 사실 같은 허구, 그런 접점을 찾으려 했다. 그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가 만화를 그리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조금 다르다.

재미도 재미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재미 만큼 중요하다. 강씨는 "제가 그린 그림이 젊은 사람들에게 5·18을 되새겨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연주가' 아시아나 양익승 기장

“승객대상 작은 음악회 갖는게 꿈”



아시아나 항공 양익승(47) 기장은 사내에서 '오보에 기장'으로 통한다.

양 기장은 클래식 동호인들과 함께

설립한 '서울 알투스 필 하모니 오케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프로 연주가다.

양 기장은 처음 오보에를 접하게 된 것은 1994년.

영화 '미션(Mission)'의 주제곡 '가브리엘스 오보에(Gabriels Oboe)'를 듣고 오보에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양기장은 '음이 높은 나무괴리'라는 뜻을 가진 오보에의 매력에 빠진 뒤에는 비행사 오보에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에 몰두했다. 양 기장은 "화물기를 탈 때는 2팀이 타기 때문에 잠시 쉴 때 오보에를 불었고 외국에서는 호텔에 투숙객들이 빠져나가는 오후 2시부터 오보에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00년 동호회 수준인 아마추어 오케스트리에 가입한 양 기장은 2002년 '서울 페스티벌 싱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정식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양 기장은 14일 '기회가 되면 협연2 양상블립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로비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갖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오보에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아드보카트 감독 '왕년에...'



티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원쪽)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활약할 때의 모습. 아드보카트 감독이 최근 페네 에세이집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란 덴마크 축구지에는 한국 대표팀을 맡은 이후의 일화와 소신, 어린 시절 야구와 축구를 병행했던 얘기 등이 담겨있다.

신안 팔금初 주현남씨 효행교사 선정 교육감상



모셔 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돼 막내며 느리게 주교사가 오늘 날까지 자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주씨는 1980년 7남매의 막내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1984년부터 4년간 위장양으로 병원생활을 했던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극진히 했다.

이후 주교사의 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접어두고 1988년 임종 당시 시아버지를

신중식의원·임권택감독 등 '자랑스런 광주·전남인'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는 지난 12일 김포국제공항청사 4층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중식 의원과 임권택 감독 등 8명을 '자랑스런 광주·전남인' 수상자로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정치 신중식 민주당 의원 ▲사회봉사 흥원표 자리산 한의원장 ·박한생 선암산개발 회장 ▲예술 임권택 감독 ▲기업 경영·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유학 박남호 성균관유도회 서울본부 회장 ▲노동 김수복 한국노동연구소 이사장 ▲관계 김세옥 대통령 경호실장 등이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작업치료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주 2회(뇌성마비, 발달장애아동, 척추손상자 등) 성인 및 아동 개별 치료 943-0420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 모집=영세민 청소년에 학습공간 제공·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생활고지 총무(평일 오전9시~밤11시, 토·일요일 오전10시~밤11시) 375-0035~6

▲담양장애인생명문화재단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한국복지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기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부음

▲정화채씨 별세 찬봉(해인기회 대표·광주전남인쇄조합 이사)·찬권(삼성병원 대표)·찬웅(한국화인 케미칼 팀장)·회승(화가)·승호·명옥·서영씨 부친상 김용문(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씨 빙부상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